<h1>나 혼자만 레벨업-44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ba65771d45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44화</p>  
<p>매캐한 연기가 안을 가득 메웠다.</p>  
<p>"콜록, 콜록."</p>  
<p>유진호가 손목으로 코를 막고 기침을 해댔다.</p>  
<p>하지만 자신보다 진우가 더 걱정이었다.</p>  
<p>리자드맨 주술사의 공격은 그 정도로 위협적이었다.</p>  
<p>하나 걱정했던 것과 달리 진우는 멀쩡한 모습으로 연기 속을 헤치고 나왔다.</p>  
<p>유진호가 감탄을 터트렸다.</p>  
<p>'역시 형님!'</p>  
<p>C급 던전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렵다는 리자드맨. 그것도 주술사의 일격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피했다.</p>  
<p>어째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았다.</p>  
<p>'...착각이겠지?'</p>  
<p>진우는 입에 들어간 돌가루를 뱉어냈다.</p>  
<p>"퉷."</p>  
<p>바닥에 떨어진 침 색깔이 까맸다.</p>  
<p>'이 자식들이...'</p>  
<p>겨우 재주 부리는 도마뱀 한 마리 때문에 매연을 들이마셔야 했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했다.</p>  
<p>불쾌함은 바로 얼굴에 드러났다.</p>  
<p>진우의 미간이 구겨졌다.</p>  
<p>[스킬: '살기'를 사용합니다.]</p>  
<p>부릅뜬 두 눈에서 강렬한 살의가 뻗어나갔다.</p>  
<p>['효과: 공포'가 발동합니다.]</p>  
<p>[대상들의 모든 능력치가 1분간 50% 감소합니다.]</p>  
<p>살기에 노출된 리자드맨들은 크게 당황했다.</p>  
<p>"쑤앜?"</p>  
<p>"쑤루까?"</p>  
<p>틈을 놓치지 않고 진우는 전력을 다해 '카사카의 독니'를 던졌다. 직선으로 날아간 단검은 리자드맨 창병 한 놈의 미간에 박혔다.</p>  
<p>푹!</p>  
<p>둔화된 몸으로 피하기에는 진우의 단검이 너무 빨랐다.</p>  
<p>"쑤콰!"</p>  
<p>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창병은 고함치며 분노를 표현했다.</p>  
<p>하지만 창끝이 향한 곳에는 진우가 없었다.</p>  
<p>어느새 진우는 사라져 있었다.</p>  
<p>"쑤룩아나까!"</p>  
<p>주술사가 흥분해 소리를 질렀다.</p>  
<p>"쑤룩아나까!"</p>  
<p>주술사가 창병에게 연거푸 같은 말을 반복하자, 창병이 주술사 쪽으로 돌아서며 괴성을 내었다.</p>  
<p>"쑤우콰!"</p>  
<p>창병이 이빨을 보이며 주술사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주술사도 기세로는 지지 않았다.</p>  
<p>"쓰와맄!"</p>  
<p>그때.</p>  
<p>"칵!"</p>  
<p>창병의 가슴에 구멍이 뚫렸다.</p>  
<p>얼굴에 피를 뒤집어쓴 주술사는 깜짝 놀라며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.</p>  
<p>"쑤앜?"</p>  
<p>스르르.</p>  
<p>은신이 풀리며 창병의 가슴을 꿰뚫은 창이 모습을 드러냈다.</p>  
<p>창을 쥐고 있는 사람은 진우였다.</p>  
<p>진우가 손을 놓자 창과 창에 꿰뚫린 리자드맨이 사이좋게 바닥으로 떨어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그 사이 진우는 다른 리자드맨 창병의 머리에 박혀 있는 '카사카의 독니'를 회수했다.</p>  
<p>"쑤와아아아맄!"</p>  
<p>주술사의 두 손에 다시 시뻘건 불꽃이 응집되기 시작했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틈을 주지 않았다.</p>  
<p>'질주!'</p>  
<p>진우와 주술사 사이의 간격이 순식간에 없어졌다.</p>  
<p>주술사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파충류답게 징그러운 눈동자였다.</p>  
<p>슈우욱.</p>  
<p>막 뿜어져 나오려는 불꽃을 피해 주술사의 뒤로 돌아간 진우가 놈의 척추에 단검을 박아 넣었다.</p>  
<p>'급소 찌르기!"</p>  
<p>푹!</p>  
<p>주술사가 비명을 내질렀다.</p>  
<p>"키야아아악!"</p>  
<p>그러나 다시 놈의 등을 찔렀을 땐 비명이 방금 전처럼 길지 않았다.</p>  
<p>푹!</p>  
<p>"칵!"</p>  
<p>리자드맨 주술사가 피를 토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.</p>  
<p>털썩.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어퍼컷을 날렸다.</p>  
<p>되짚어 봐도 깔끔한 싸움이었다.</p>  
<p>'좋았으!'</p>  
<p>승리를 축하해 주려는 듯 시스템이 경쾌한 기계음을 내보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레벨이 올랐습니다!]</p>  
<p>['플레이어'가 요구 레벨에 도달했습니다.]</p>  
<p>익숙한 메시지 뒤의 생소한 메시지.</p>  
<p>'요구 레벨?'</p>  
<p>이때까지만 해도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.</p>  
<p>하지만 다음 기계음이 울렸을 때, 진우는 가슴이 아플 정도로 거칠게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.</p>  
<p>띠링.</p>  
<p>[전직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.]</p>  
<p>[전직 퀘스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'전... 전직 퀘스트?'</p>  
<p>레벨과 스탯을 올리는 데 집중하느라 상태창의 한쪽 칸을 잊고 있었다.</p>  
<p>[이름: 성진우]</p>  
<p>[레벨: 40]</p>  
<p>[직업: 없음]</p>  
<p>상태창의 세 번째 줄을 차지하고 있는 '직업'란.</p>  
<p>'전직 퀘스트가 가능하다는 건...'</p>  
<p>없음이란 말 대신 다른 단어가 들어갈 기회가 왔다는 뜻이었다.</p>  
<p>직업을 갖는다.</p>  
<p>대부분 게임에서 캐릭터는 전직 시 많은 혜택을 얻는다.</p>  
<p>게임과 비슷하게 돌아가는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을 터.</p>  
<p>두근두근.</p>  
<p>심장의 박동이 거세졌다.</p>  
<p>이걸로 강한 힘을 갖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진정되지를 않았다.</p>  
<p>[전직 퀘스트를 수락하시겠습니까?] (Y/N)</p>  
<p>눈앞에서 Yes or No가 계속 깜박거렸다.</p>  
<p>'그야 당연히...'</p>  
<p>어떤 바보가 이런 기회를 차 버릴까?</p>  
<p>진우는 흔쾌히 전직 퀘스트를 수락하려고 했다.</p>  
<p>그런데 본능적으로 멈칫했다.</p>  
<p>'아니, 잠깐.'</p>  
<p>무슨 퀘스트가 나올지 모르잖아?</p>  
<p>본능의 신호 뒤에 이성의 경고가 이어졌다.</p>  
<p>'여기는 던전 안이다.'</p>  
<p>던전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였다.</p>  
<p>C끕 던전에 충분히 익숙해졌다고 해도 던전은 던전.</p>  
<p>일부러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다.</p>  
<p>게다가 근처에 유진호도 있었다.</p>  
<p>유진호를 못 믿는 건 아니었다.</p>  
<p>하지만 굳이 시스템에 대한 단서를 주거나, 전직할 때 벌어질지도 모를 괴현상을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?</p>  
<p>일이 복잡해질지 모른다.</p>  
<p>'게다가 퀘스트 내용에 따라 진호한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고.'</p>  
<p>갑작스럽게 몬스터라도 생성된다면?</p>  
<p>'차라리 그 정도면 다행이지.'</p>  
<p>몬스터야 직접 잡으면 그만이니까.</p>  
<p>그러나 그보다 더한 퀘스트도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었다.</p>  
<p>예를 들면 두 번이나 받았던 긴급 퀘스트 때처럼.</p>  
<p>'가장 가까이에 있는 헌터를 처치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다.'</p>  
<p>만에 하나.</p>  
<p>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하지만 말이다.</p>  
<p>마침 유진호가 다가왔다.</p>  
<p>"형님!"</p>  
<p>리자드맨 주술사가 죽기 직전 날렸던 마법이 근처에 떨어졌었는지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쓴 모양이었다.</p>  
<p>"방금 갑자기 사라졌다 나타난 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? 그런 스킬도 있으셨어요?"</p>  
<p>유진호는 상기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.</p>  
<p>희귀 스킬인 은신이 되게 신기했던 모양이었다.</p>  
<p>'나는 지금 니 꼴이 더 신기한데.'</p>  
<p>진우는 대답 대신 인벤에서 손수건을 꺼냈다.</p>  
<p>그제 일일퀘 보상으로 받은 물건이었다.</p>  
<p>"혀, 형님?"</p>  
<p>그걸로 유진호의 얼굴을 사정없이 문질렀다.</p>  
<p>"우으읍, 프읍!"</p>  
<p>새하앴던 손수건이 검게 변했다.</p>  
<p>유진호는 진우가 넘겨준 손수건의 상태를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얼굴 상태가 어쩐지 깨달았다.</p>  
<p>머쓱해진 유진호는 조용히 구석구석 얼굴을 닦았다.</p>  
<p>"진호야."</p>  
<p>"네, 형님."</p>  
<p>"급한 볼일이 생각났다."</p>  
<p>유진호가 휙 고개를 들었다.</p>  
<p>"그럼 가 보셔야 됩니까?"</p>  
<p>"여기만 마저 돌고."</p>  
<p>"알겠습니다. 그럼 나머지 게이트들은 예약 취소하겠습니다."</p>  
<p>진우 앞이라 티는 못 냈지만 유진호는 예약해 둔 세 개의 게이트가 내심 아까웠다.</p>  
<p>'이제 슬슬 자금이 떨어져 가는데.'</p>  
<p>따로 벌이가 없는 유진호의 자금이란 용돈을 모은 것이 전부였다.</p>  
<p>아버지 몰래 하는 짓이라 융통할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었다.</p>  
<p>게이트를 취소하면 예약하는 데 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.</p>  
<p>생돈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다.</p>  
<p>어찌 아깝지 않겠는가?</p>  
<p>안 그래도 독특한 레이드 방식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썼다.</p>  
<p>그런데 또 자금을 낭비해야 한다니.</p>  
<p>유진호의 어깨가 자연스레 축 늘어졌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다.</p>  
<p>"돈 아깝게 그걸 왜 취소해?"</p>  
<p>유진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"예? 게이트 예약해 놓고 이틀 동안 안 들어가면 어차피 자동으로 허가가 취소됩니다. 형님."</p>  
<p>물론 진우가 그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다.</p>  
<p>"나한테 맡겨둬."</p>  
<p>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으신가?</p>  
<p>유진호는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 듬직한 기분이 들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백호 길드 건물.</p>  
<p>"안 과장님!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겁니까?"</p>  
<p>제2관리과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.</p>  
<p>목소리의 주인은 백윤호.</p>  
<p>백호 길드의 마스터이자 사장인 인물이었다.</p>  
<p>다른 이도 아니고 사장이 아래층까지 직접 따지러 내려왔다는 건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함을 의미했다.</p>  
<p>"아니, 신입들 훈련시킬 게이트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? 벌써 훈련 일정을 사흘이나 미루신 거 아십니까, 모르십니까?"</p>  
<p>제2관리과 직원들이 모두 눈을 내리깔았다.</p>  
<p>다들 불똥이 튈까 봐 조마조마한 눈초리였다.</p>  
<p>코앞에서 백윤호의 손가락질을 받는 과장 안상민 또한 고개를 푹 숙였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안상민은 자신의 부하 직원 현기철처럼 흥분한 상사에게 꼬박꼬박 말대답해서 상사의 화를 키울 정도로 미숙하지 않았다.</p>  
<p>이럴 땐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제일이었다.</p>  
<p>안상민의 심정을 아는지, 모르는지.</p>  
<p>백윤호는 오늘 아침 제2관리과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흔들어 댔다.</p>  
<p>"이걸 핑계라고 대는 겁니까? 다른 팀이 너무 높은 입찰가를 불러 대서 예약할 수가 없다? 우리 길드에 돈 없어요? 아니면 상대방이 무슨 재벌가라도 끼고 있답니까?"</p>  
<p>이 순간만큼 정말로 입이 간지러웠으나 안상민은 철인 같은 인내심으로 잘 견뎌 냈다.</p>  
<p>진우와 한 약속이 있었다.</p>  
<p>'지금 입을 열면 유진호와 성진우 이야기까지 자동으로 나오게 돼.'</p>  
<p>안상민의 타들어 가는 속도 모르고 백윤호는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 댔다.</p>  
<p>"1억이든 2억이든 무조건 게이트를 예약하라 이겁니다! 아시겠어요?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안상민의 전화가 울렸다.</p>  
<p>[아! 아까는 못 받아서 미안해, 친구를 만나느라 shy shy shy~♪]</p>  
<p>잠깐 곁눈질로 발신자를 확인한 안상민의 눈이 커졌다.</p>  
<p>"사장님, 전화 좀 받겠습니다."</p>  
<p>"..."</p>  
<p>신입들의 영입이 주 업무인 제2관리과는 뭐니 뭐니 해도 타이밍이 생명!</p>  
<p>안상민은 그런 제2관리과의 보스였다.</p>  
<p>아무리 안상민이 실수를 했고 그 때문에 화가 났다고는 해도 그에게 걸려오는 전화를 못 받게 하는 건 멍청한 짓이었다.</p>  
<p>"뭐 해요? 얼른 안 받고."</p>  
<p>백윤호가 퉁명스럽게 허락했다.</p>  
<p>안상민은 양해해 달란 의미로 백윤호에게 살짝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.</p>  
<p>"예. 백호 길드의 안상민입니다."</p>  
<p>안상민이 전화를 받는 동안 백윤호가 앞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렸다.</p>  
<p>"네, 네. 알겠습니다. 1층 카페에서 기다리시면 저희가 바로 가겠습니다. 네, 그럼."</p>  
<p>전화를 끊은 안상민이 총알같이 말했다.</p>  
<p>"사장님, 저 잠시 나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."</p>  
<p>제2관리과의 에이스.</p>  
<p>천하의 안상민 과장이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전화 한 통화에 뛰쳐나가야 할 일이라면...</p>  
<p>백윤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.</p>  
<p>"혹시 신입 스카웃 관련된 전화입니까?"</p>  
<p>"네."</p>  
<p>안상민의 자신 있는 표정에서 백윤호는 뭔가 있음을 직감했다.</p>  
<p>'그래도 안 과장이 신입을 직접 스카웃하러 나서?'</p>  
<p>상대가 보통내기가 아니란 소리였다.</p>  
<p>험악하게 일그러져 있던 백윤호의 얼굴에 어느덧 미소가 나타났다.</p>  
<p>"영입 스페셜리스트가 영입을 못 하게 막아서야 되겠습니까. 여기 일은 신경쓰지 마시고 어서 갔다 오세요."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